

# “나도 부처 될래요”...새싹 불심 활짝

## 나도 한마디

### 친구사귀고 예불하고 불교가 좋아졌어요

◆달로만 들던 용주사절의 규모가 상상보다 세 배나 커서 정말 놀랐어요. 용주사에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많이 많이 빌었어요.

현민희(서울 회룡초등 5)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서 왕파도를 탈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2박3일동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 추억을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류승원(서울 무신초등 3)

◆부처님 곁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게 이렇게 힘든줄 몰랐어요. 처음엔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사귀어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보영(서울 둔촌초등 3)

◆이번 캠프가 벌써 세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캠프에서도 하나씩을 꼭 배웠는데 이번에도 <부모은중경>을 사경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김지연(서울 연촌초등 5)

◆수영장에서 길을 잃어버려 겁이 많이 났었는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찾으러 와서 고맙았어요.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느꼈어요.

남은호(용인 원삼초등 2)

◆절이 처음이라 용주사에서 지내는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스님들이 웃으면서 잘 대해 주셔서 이제는 안 무서워요.

홍윤(서울 선곡초등 4)

◆캠프를 처음 떠날때는 매일 모셔 노는 줄만 알았는데 절과 합장만 하니까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놀이기구도 타고 캠프파이어도 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숙연(서울 소의초등 5)

◆처음에는 숙스럽고 적응이 잘 안됐는데 갈수록 조원들과 친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불교가 좋아졌어요.

이소영(대전 유천초등 4)

◆이번 캠프에 혼자 참가해 보니 집에서 얼마나 여러광을 부렸는지 알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 가면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김민호(서울 반포초등 3)

◆용주사에 가면 엄마가 절을 108번 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90번 밖에 하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108번을 채울 거예요. 이효은(영주 남부초등 2)

◆동나무집 앞에서 캠프파이어를 진행할 꽃피지 아저씨 때문에 배꼽 잡고 웃었던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 에버랜드의 '레이저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김요한(서울 경동초등 4)

##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현장



◆목아박물관에 봉안된 불상들을 돌아보며 설명문을 읽고 화장 반배하고 있는 어린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은중경> 시경에 몰두하고 있는 새싹 불자들.



◆부모은중경을 새긴 락 앞에서 용주사 승주 성호 스님으로부터 용주사기 탄생한 배경 등 '호(孝)' 법문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발우공양이 아닌 식판 공양이지만 공양전 오라계를 외우며 발우공양정신을 되새긴다.



◆활활 티오르는 모닥불 연기에 불꽃토를 향한 우리의 발원을 실어 보내자.

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실장 이성훈)가 진행한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가 7월 20일~22일 2박3일간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등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의 163명 새싹 불자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선, 시경, 예불 등 불교의식을 배우며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 일 오전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지루했지만 캠프에 대한 기대로 조계사 승주원 1층 불교회관에 모인 새싹불자들의 모습은 그저 밝기만 했다. 주최측에서 나눠준 흰색과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어린이들은 간단한 입제식을 마치고 부모님의 배웅을 뒤로 한채 힘차게 조계사 일주문을 나섰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 버스가 처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목아박물관. 이곳에 전시돼 있는 갖가지 목조 불보살상들을 보자 그 정교한 모습에 어린이 불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 내가 호랑이 탄데 여기 호랑이 조각상이 있네' 어린이불자들은 12지신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자기띠와 똑같다고 즐거워 하기도 했다. 또 '문수보살, 지장보살...' 등 불교문화를 알고자 설명문을 수첩에 열심히 적는 어린이들 목아박물관장의 목불 재현 과정을 영상에 담은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를 보면서 이제는 불상 만드는 법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목아박물관을 떠나 화성 용주사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저녁 공양후 어린이들은 태실스님(봉은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과 함께 저녁 예불을 올리며 합회 정진의 시간을 가졌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가. 시간은 저녁 9시밖에 안되었지만 사찰 규율상 어린이들은 아쉽게도 잠을 청해야만 했다.

21일 새벽5시, 경소 같은 집에서 달콤한 꿈나라를 헤매던 시간이지만 어린이들은 모두 일어나 아침예불로 활짝날 일정을 시작했다. 용주사 보살님들이 정성껏 마련한 아침을 먹고 펼쳐진 성호 스님(용주사 승주)의 효행 법문시간.

"부·다·피·아 어린이 여러분, 용주사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찬불가 음악에 맞춰 흥겨운 무용을 따라 배우며 어린이들이 즐거워 하고 있다.

## 용주사서 참선·예불 '수행' 사경하며 부모님께 감사 에버랜드서 신나는 놀이도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절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마음속에 간직해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부모님의 인연에 감사하는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스님과 손잡고 약속할 수 있죠?" "예" 이어 열린 <부모은중경> 1차에 사경 정진시간. 발금 '호' 법문을 들려서인지 어린이들은 팔을 벌려 춤추며 한자 한자 따라 쓰느라고 고사라같은 손을 빠르게 움직였다. 휴식 겸 열린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신나는 멜로디와 이미에 지도교사의 재미있는 율동 지도에 모두들 몸을 흔들며 찬진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에버랜드로 가는 시간, 숙소인 동나무집에 내리자 마자 수행복으로 갈아입은 어린이

들은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으로 향했다. 바다처럼 넓직한 인공 파도를 보자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새싹불자들은 이곳이 바로 불국토인 양 환호성을 지르며 즐겼다. 저녁 9시부터 에버랜드 페스티벌 월드에서 펼쳐진 레이저쇼를 감상한 어린이들은 감동한 하늘에 오색 불꽃이 수놓아 지자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지막날인 22일, 간간이 쏟아지는 폭우에도 아랑곳 없이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짧은 2박3일의 일정을 마쳤다. 박박한 일정이 피곤했던지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단장에 빠져든 새싹불자들의 얼굴에는 꿈속에서 문수동자를 만나는 듯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포교원  
(사)대한불교교화회  
봉은사·목아박물관·신수회  
협찬: 대한불교진각종·(재)보덕학회

## 신터뷰

### 중학생 참가캠프도 마련했으면...

강수정 <충남 서산초등 6>



고모가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해마다 보내주셔서 매년 참가했었어요. 올해 6학년이어서 이번 캠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설렘해요. 여름 방학만 되면 기다려지던 부다피아캠프를 통해 불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잘 모르던 불교예절도 많이 배워 절에 가서 스님들께 청진도 많이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저와 같이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캠프 참가후 절에 열심히 다녀

조인기 <서울 남성초등 6>



작년에 부다피아 캠프에 첫 참가하며 봉은사 친구들을 사귀게 돼 그때부터 봉은사에 열심히 나가게 됐어요. 전에 아빠가 절에 나가라고 할 때는 말을 안들었는데 작년 캠프때 여자 스님께서 가보니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올해는 연국 어린이기자와 봉은사 어린이법회 부회장까지 맡아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부다피아 캠프가 10년, 20년 계속돼 나중에 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지도교사로 함께 동생들을 지도하고 싶어요.

###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 흙벽돌 기계  
반죽 하지 않고  
생음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장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 이태형의 고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숙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숙 엑기스는?

야생진 인진숙(野山參)은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덩이 속에서도 피관말과 돌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물약을 일컫니다. 구성비지인 양생스님은 이태형의 고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숙(野山參)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차한 황기, 당귀, 자연산 북부재산활기등 8종의 약초를 가마솥 보시부에서 정성 허가경신 제14회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물 가공된 건강식품으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엔 필라 마음으로 다량섭취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숙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뇌저병 해빙이나 치료에 필요한 자연산 상황배섯, 기간지식·음역기성에 특효라는 가래엿, 권질·과다관중·공집에 쓰이는 토종통화씨 등이 필요한 분은 연락하십시오

순수익이름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제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임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푸른 곳에서 장로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 주 문 전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 신식 감정콩 '金檀花'

“해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작고까마하죠? 그런데 이게 황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웃나무와 소나무의 울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울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감정콩을 역체에 담았다가 건조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역체에 담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속성 기간이 좀더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지만 꽃피기 한 뒤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울진 송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들이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신식 감정콩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비싼 호기질을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cc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8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인 3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혈압, 지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